한국무용과학회지, 2026, 제43권 제4호, pp.121~140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2026, Vol.43, No.4 pp.121~140
1229-7836/26/723
DOI http://dx.doi.org/10.21539/Ksds.2026.43.4.121

# 국제고등학교 졸업생의 해외대학 지원에서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의 활용과 의미

안정연* 김포대학교 · 홍혜전** 국립공주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국제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해외대학 지원에서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활용하였다고 회고하며, 면담 시점에서 해당 활동에 어떠한 개인적·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지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C국제고등학교 재학 중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고 해외대학 지원을 경험한 졸업생 5명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는 대학 지원 이후 Zoom을 활용한 반구조화 심층면담으로 수집하였다. 전사자료는 질적 내용분석을 준거로 연구문제에 따라 검토하되, 구체적인 코드와 범주는 참여자의 진술을 비교하여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참여자들은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에서 자신의 관심과 연결되는 경험을 선택하고, 에세이·활동기록·포트폴리오 등 지원자료의 형식에 따라 제시하였다고 회고하였다. 둘째, 지속적인 참여, 학업과 연습을 병행한 노력, 군무에서의 역할 및 예술적 관심을 자신의 특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해석하였다. 문화적 경험은 자신의 배경과 대학 공동체에서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설명하는 자원으로 이해되었으며, 다른 지원자와 구별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타났다. 셋째, 입시 활용에 대한 인식과 함께 즐거움, 애착, 또래 관계 및 문화적 자긍심이 나타났고, 시간과 비용의 부담도 회고되었다. 지원 이후에는 조건부 재참여 의향, 참여를 준비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한 경험, 관련 동아리 입단 및 다른 장르의 무용 참여가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의 활용과 의미를 참여자의 관심, 지원자료의 조건 및 이후의 생활 맥락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회고와 해석에 근거하여 비교과 활동의 경험이 자기표현에 활용되는 방식과 개인적 의미의 관계를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국제고등학교 졸업생, 해외대학 지원,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 자기표현

## Ⅰ. 서론

미국 대학의 홀리스틱(holistic) 입학사정은 교과 성적과 이수한 교육과정의 수준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 에세이, 추천서 및 개인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 방식이다. 김주아, 전경희, 김지은과 강충서(2024)는 미국 대학의 홀리스틱 입학사정이 지원자의 다양한 경험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특성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미국대학입학상담협회(NACAC, 2023) 역시 학업성취와 함께 에세이, 추천서 및 비교과 활동 등이 입학결정의 평가요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Harvard College와 Yale University도 학업역량 외에 공동체 참여, 비교과 활동, 개인적 특성과 배경 등을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다(Harvard College, n.d.; Yale University, n.d.). 이러한 평가 맥락에서 비교과 활동은 지원자가 자신의 관심과 특성,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미국 대학의 입학사정 방식을 해외대학 전반의 특성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활동의 제시 방식과 평가 비중은 국가·대학·전공 및 전형에 따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학생이 대학 지원이라는 평가 상황에서 자신의 예술활동 경험을 선택하고 제시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 김포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국립공주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hyejeon007@kongju.ac.kr

대학 지원에서 비교과 활동을 활용하는 일은 참여 이력을 기재하는 것과 함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자신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학생은 활동에서 겪은 사건과 역할, 배움 가운데 특정 내용을 선택하고, 이를 관심 분야나 진로와 연결하여 에세이·활동기록·포트폴리오 및 면접 등에서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경험과 지원 상황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의미 있게 기억하는 관계나 배움이 간략하게 제시되는 반면, 특정 사건이나 역할이 자신의 특성을 설명하는 핵심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경험도 제출자료의 형식과 서술 공간에 따라 짧은 활동 이력으로 제시되거나, 다른 경험과 연결된 이야기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비교과 활동의 활용을 이해하려면 어떤 경험을 선택했는지와 함께, 이를 지원 형식에 맞추어 어떻게 제시하고 자신에 관한 설명으로 연결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활동은 이러한 경험의 선택과 표현을 탐색할 수 있는 교육적 맥락이다. 김형숙(2012)은 예술교육을 창의·인성교육의 관점에서 논의하였으며, 김설리와 조남규(2019)는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의미를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과 에릭슨의 자아정체성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탐색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예술교육을 기능 습득과 함께 학습자의 자기이해와 관계 형성의 차원에서 살펴보게 한다. 특히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타인과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연습·창작·공연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는 활동이다. 대학 지원에서는 이러한 신체적·관계적 경험을 언어와 지원자료의 형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수행 과정의 어떤 장면과 역할이 자신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선택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무용 활동이 이후의 목적과 맥락에 따라 해석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에는 신체적 표현과 공동의 수행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와 문화적 배경을 배우고 표현하는 경험이 포함될 수 있다. 박태연(2019)은 초등 한국무용 학습자의 인식을 분석하면서 한국무용교육을 전통문화 이해 및 정체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해외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에게도 한국무용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관심을 설명하는 소재가 될 수 있다. 다만 한국무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문화적 의미가 형성되었다고 전제하기는 어렵다. 학생이 움직임과 작품, 연습 및 공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과 연결하는지, 그중 어떤 측면을 지원 상황에서 강조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과 다른 지원자와 구별되는 특성을 드러내려는 것은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동일한 의미는 아니므로, 참여자의 설명에 근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수련과 윤주석(2022)은 국제고등학교 한국무용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례연구에서 소통, 진로 재탐색 및 한국문화의 재발견이라는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무용 활동이 관계 형성과 진로 탐색, 문화 이해에 연결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활동 참여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것과, 그 경험이 대학 지원에서 선택되고 제시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구분된다. 특히 참여자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경험과 평가자에게 보여주고자 한 특성이 어떻게 연결되거나 달라지는지는 활동의 교육적 의미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무용 활동의 의미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여, 신체적·관계적·문화적 경험이 지원 목적과 자료의 형식에 따라 선택되는 방식, 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자기 특성과 문화적 배경, 그리고 지원 이후 개인에게 남아 있는 의미를 함께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자기서사에 관한 논의가 참고가 된다. McAdams와 McLean(2013, p. 233)은 서사적 정체성을 재구성된 과거와 상상된 미래를 연결하여 삶에 통일성과 목적을 부여하는 이야기로 설명하였으며, 경험을 이야기하는 목적과 청자의 반응이 의미화와 관련됨을 논의하였다(McAdams & McLean, 2013, p. 236). Kirkland와 Hansen(2011, p. 104)은 미국 미시간대학교의 다양성 에세이를 분석하면서, 지원자가 대학의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안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들 논의는 대학 지원에서의 자기표현을 과거 경험에 대한 해석과 특정한 독자 및 목적을 고려하는 행위가 만나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경험의 선택·연결·강조를 이해하는 해석적 관점으로 참고한다. 다만 활동 이력의 기재와 경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야기 구성을 구분하며, 지원 과정에서 경험을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서사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적 정체성의 형성이나 변화를 판단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은 C국제고등학교의 한국무용 비교과 수업과 이에 연계된 연습·창작·공연·대회 및 협업·봉사 활동을 의미한다. '활용'은 참여자가 이러한 활동에서 얻은 경험과 수행한 역할을 선택하여 대학 지원자료와 면접에서 자신을 설명하는 데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경험의 선택은 활동의 수강 여부보다, 이미 참여한 활동에서 어떤 사건과 역할, 배움을 제시할 것인지 고르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의미'는 참여자가 해당 활동과 경험을 해석하면서 부여하는 개인적·문화적 중요성을 가리킨다. 한국무용과 별도로 참여한 다른 예술활동이나 포럼·봉사·교류 경험은 한국무용 활동 자체와 구분하되, 지원 과정에서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설명되는지 함께 살펴본다. 이는 복합적인 활동 경험을 한국무용만의 효과로 귀속하지 않으면서, 다른 관심과 경험 속에서 한국무용이 활용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무용 경험의 입시 활용과 개인적 의미 사이의 관계 역시 참여자의 설명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에게 한국무용은 대학 지원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료이면서 즐거움과 배움, 관계 및 문화적 자긍심이 담긴 활동일 수 있다. 그러나 활동에 대한 애착이 반드시 적극적인 입시 활용이나 이후의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간과 비용의 부담, 다른 활동과의 병행, 참여 기회 등도 활동을 기억하고 평가하는 방식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입시에서 유용하다고 인식한 경험과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경험이 어떻게 연결되거나 구분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지원 이후의 기억과 참여에 관한 진술은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는 맥락으로 검토하되, 재참여 의향과 향후 계획, 실행되지 않은 준비, 실제 참여 경험을 구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국제고등학교 졸업생의 회고적 면담을 바탕으로, 해외대학 지원에서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의 경험을 선택하고 활용한 방식과 면담 시점에서 해당 활동에 부여하는 개인적·문화적 의미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외대학 지원은 참여자들이 실제 지원한 국가·대학·전공 및 전형의 요구 속에서 해당 경험을 제시한 맥락으로 한정한다. 분석에서는 지원 당시의 선택과 활용에 관한 회고와 면담 시점의 의미 해석을 구분하며, 참여자가 인식한 유용성을 실제 입학사정의 평가나 합격에 대한 인과적 영향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신체적·관계적·문화적 경험이 대학 지원에서 자기표현의 자료로 선택되는 양상과, 그 경험의 개인적 의미가 입시 활용 및 이후의 삶의 여건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함께 밝힌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고등학교 졸업생은 해외대학 지원에서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 경험을 어떤 이유로 선택하고 어떻게 제시하였는가?

둘째, 국제고등학교 졸업생은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 경험을 통해 자신의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셋째, 국제고등학교 졸업생은 면담 시점에서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 경험의 입시 활용과 개인적·문화적 의미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 Ⅱ.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제고등학교 졸업생의 해외대학 지원에서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 경험의 활용과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질적 사례연구이다. 질적 사례연구는 현상을 그것이 발생한 맥락 안에서 탐색하는 접근이다(Baxter & Jack, 2008, p. 544).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이 이루어진 학교의 교육적 맥락과 대학 지원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졸업생들이 활동 경험을 선택하고 제시한 방식과 그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사례의 경계는 C국제고등학교의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과 이를 경험한 졸업생들의 해외대학 지원 맥락으로 설정하였다. 동일한 학교의 활동을 공유한 졸업생 5명의 경험을 하나의 사례 안에서 탐색하되, 참여자별 경험을 사례 내부의 비교 단위로 삼았다. 탐색하는 경험의 시간적 범위는 고등학교 재학 중 활동 참여부터 대학 지원을 거쳐 면담 시점까지로 설정하였다. 참여자별 활동 내용과 역할, 지원 국가·전공 및 제출자료의 차이는 경험의 활용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맥락으로 고려하였다. 분석은 대학 지원 이후 수집한 회고적 면담을 중심으로, 한국무용 경험의 선택 이유와 제시 방식, 이를 통한 자기 특성과 문화적 배경의 설명, 입시 활용과 개인적·문화적 의미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지원 당시의 선택과 활용에 관한 회고와 면담 시점에서 부여하는 의미를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연구대상 현상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는 목적표집을 통해 구성하였다(Palinkas, Horwitz, Green, Wisdom, Duan, & Hoagwood, 2015, p. 533). 선정 기준은 C국제고등학교 재학 중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고 해외대학 지원을 경험한 졸업생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며, 연구목적과 면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은 방과후 한국무용 수업과 이에 연계된 연습·공연·대회 및 협업·봉사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에서는 탈춤, 소고춤, 강강술래, 사자놀음 등 전통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재구성한 작품의 공연 경험이 언급되었다. 참여자별로 활동기간과 작품, 개인 작품·군무 및 협업·봉사공연의 참여 양상이 달랐으므로, 활동 내용과 수행한 역할을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참여자별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 연구참여자 | 한국무용 활동기간 | 지원 국가/진학 국가 | 지원 전공 분야 | 주요 한국무용 활동 경험 |
|---|---|---|---|---|
| A | 3년 | 미국, 영국 / 미국 | 수학·공학 | 개인 작품과 군무 공연·대회, 사자놀음 소재 작품 참여 |
| B | 2년 | 미국 / 미국 | 경영 | 군무와 공연, 협업·봉사 관련 활동 |
| C | 3년 | 미국 / 미국 | 공연예술 | 개인 탈춤 작품과 군무, 협업·봉사공연 |
| D | 2년 6개월 | 미국, 캐나다 / 캐나다 | 생명·보건 | 군무 중심의 공연·대회, 꽃춤·강강술래·탈춤 및 협업공연 |
| E | 2년 | 미국 / 미국 | 공학 | 개인 작품과 군무, 탈춤·소고춤 관련 활동 및 해외공연 |

## 3. 자료수집 및 분석

### 1) 자료수집

자료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Zoom을 활용한 반구조화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학사 일정과 체류 지역의 시차를 고려하여 참여자별 2~3회, 회당 90~120분 진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대학 지원 이후에 실시하였으며, 대학 지원 과정에서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 경험을 선택하고 활용한 방식에 관한 회고와 면담 시점에서 해당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탐색하였다.

면담은 〈표 2〉의 질문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사건의 맥락과 판단의 이유를 확인하는 후속 질문을 실시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후 전사하였으며, 전사자료를 주요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표 2. 면담의 주요 내용

| 질문 영역 | 주요 내용 |
|---|---|
| 참여 배경 및 활동 경험 |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의 참여 계기, 활동 내용과 역할, 기억에 남는 사건과 어려움 |
| 경험의 선택과 활용 | 지원 과정에서 선택한 경험과 이유, 에세이·활동기록·포트폴리오·면접 등에서 제시한 방식 |
| 경험의 연결과 자기표현 | 다른 활동 및 관심 분야와 연결한 방식, 자신의 특성과 문화적 배경에 관한 설명 |
| 지원 이후의 기억과 의미 | 면담 시점에서 기억하는 경험과 개인적·문화적 의미, 입시 활용에 대한 생각, 재참여 의향·계획·준비 및 실행 경험 |

면담은 참여자들의 한국무용 활동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연구자와 참여자의 기존 관계 및 면담자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따라(Tong, Sainsbury, & Craig, 2007, pp. 351-352), 지도 경험이 면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지도 경험은 활동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참여자가 지도자의 기대를 의식하여 긍정적인 경험을 강조하거나 비판적인 설명을 유보했을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또한 지원자료 작성 당시 지도자의 관여 범위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참여자가 회고한 선택과 표현을 전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의 결과로 단정하지 않았다.

수업계획안, 공연·대회 기록, 협업·봉사공연 자료 및 행사·보도자료는 수업과 연계 활동의 구성, 공연의 성격 및 참여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와 연구자의 지도 경험은 활동의 배경을 파악하는 데 참고하였으며, 참여자가 경험에 부여한 의미는 면담 진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2)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chreier의 질적 내용분석을 준거로 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코딩틀을 활용하여 질적 자료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다(Schreier, 2014, p. 170).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 경험의 활용과 의미에 나타나는 참여자 간 공통점과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 접근을 적용하였다. 연구문제와 면담 질문을 분석의 관심 영역으로 설정하되, 구체적인 코드와 범주는 참여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분석에 앞서 면담자료의 참여자별 귀속을 확인하여 혼재된 진술을 분리하고, 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참여자별 활동과 대학 지원 경험의 맥락을 파악하였다. 코딩 단위는 한 가지 경험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발화 또는 연속된 발화 묶음으로 설정하였다. 하나의 응답에 서로 다른 의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의미가 전환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나누고, 관련 질문과 응답 및 동일 참여자의 전후 진술을 해석의 맥락으로 참조하였다(Schreier, 2014, p. 174).

연구문제와 관련된 의미단위에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코드를 부여하고, 코드 간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하여 하위범주와 상위범주의 초안을 구성하였다. 범주별 정의, 포함·제외 기준 및 대표 진술을 정리한 뒤 일부 전사자료를 대상으로 시험 코딩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술과 범주 정의의 부합성, 분류 기준의 일관성 및 범주 간 중복을 점검하였다.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진술의 전후 맥락을 검토하여 범주 정의와 포함·제외 기준을 조정하였다. 수정된 코딩틀은 전체 자료에 적용하고, 원문-의미단위-코드-범주의 연결과 주요 변경 내용 및 이유를 기록하였다.

분류에서는 진술이 설명하는 대상과 의미를 기준으로 삼았다. 대학 지원에 제시할 경험의 선택 이유와 지원자료·면접에서의 제시 방식에 관한 진술은 '경험의 선택과 제시'로, 해당 경험을 통해 자신의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설명한 진술은 '자기표현의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활동의 즐거움·애착·문화적 자긍심·부담 등에 관한 진술은 입시 활용과 개인적·문화적 의미의 관계를 살펴보는 자료로 다루었다. 지원 이후의 참여에 관한 진술에서는 의향과 계

획, 준비 행동, 참여자가 보고한 실행 경험을 구별하였다. 분류는 특정 단어의 출현보다 발화의 맥락과 참여자가 설명한 경험에 근거하였다. 코딩 및 하위범주 분류의 예시는 〈표 3〉과 같다.

표 3. 코딩 및 하위범주 분류 예시

| 진술발췌 | 코드 | 하위범주 | 분류 근거 |
|---|---|---|---|
| “대회 날에 새벽에 다 같이 4시에 모여서 준비하고 이거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써” (D) | 대회 준비 장면을 글의 도입으로 선택 | 지원 형식에 따라 경험을 제시하다 | 대회 준비 경험을 글의 시작 장면으로 선택하여 제시한 방식을 설명함 |
| “내가 진짜 계속 리더나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약간 팔로어십의 자질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데 […] 이거 [한국무용] 하면서 약간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 이런 걸 깨닫게 됐다.” (B) | 함께하는 경험을 팔로어십과 연결하여 해석 | 활동 과정과 역할을 자신의 특성으로 설명하다 | 기존의 리더 역할과 대비하여 한국무용에서 함께하는 경험을 팔로어십과 연결하고, 그 의미를 설명함 |
| “진짜 학원까지 알아봤거든요. 근데 못 했어요.” (D) | 학원 탐색 후 참여로 이어지지 못함 | 경험을 기억하고 여건에 따른 참여 양상을 설명하다 | 학원을 알아보았으나 참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단순한 참여 의향 및 실제 참여를 보고한 경우와 구분함 |

하위범주는 공통된 분석 초점에 따라 상위범주로 통합하였다. 경험의 선택 이유와 제시 방식, 자기 특성과 문화적 배경의 설명, 입시 활용과 개인적 의미 및 이후 참여 양상을 중심으로 범주 간 관계를 검토하여 세 가지 상위범주와 여섯 가지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결과 해석에서는 지원자료와 면접에 실제로 활용했다고 회고한 경험과 활용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구분하고, 지원 당시의 판단에 대한 회고와 면담 시점에서 부여한 의미를 구별하였다. 자신의 특성에 관한 설명은 참여자의 자기표현과 의미 해석으로 다루었으며, 객관적인 역량 향상이나 실제 입학사정의 평가 및 합격에 대한 인과적 영향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한국무용과 다른 예술활동·포럼·봉사 경험이 함께 언급된 경우에는 활동 간 연결을 살펴보되, 복합적인 경험의 의미를 한국무용만의 효과로 귀속하지 않았다.

## 4. 연구의 신뢰성 및 윤리성 확보

본 연구는 자료와 해석의 부합성, 분석 과정의 추적 가능성 및 연구 맥락의 기술을 중심으로 신뢰성을 점검하였다(Nowell, Norris, White, & Moules, 2017, p. 3). 면담 원자료와 코드·범주를 대조하여 분류 기준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범주를 뒷받침하는 진술뿐 아니라 상이하거나 유보적인 설명도 함께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B가 에세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힌 부분은 지원 당시의 서술을 확정적으로 재현한 자료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E가 언급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은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해석하였다. 또한 면담자의 질문과 응답을 대조하여 질문에 포함된 평가에 대한 단순한 동의와 참여자가 구체적인 경험 및 판단의 이유를 설명한 진술을 구분하였다.

분석 검토에는 교육학·무용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명과 한국무용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명이 참여하였다. 검토자들은 분석 절차, 진술과 범주 간 연결, 범주 구분과 명명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연구자는 제시된 의견을 원자료와 대조하여 범주와 설명을 수정·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의 진술을 넘어선 확대 해석 여부와 경험의 선택에 개인적 관심뿐 아니라 지원자료의 요구 및 예상한 평가자의 관심이 관련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전문가 검토는 해석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수렴한 절차로, 독립적인 중복 코딩이나 코더 간 일치도 검증과 구분하였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다. 아울러 활동 환경과 참여자의 지원 맥락을 기술하여 독자가 연구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면담 내용, 녹음 및 자료 활용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얻었다. 참여자는 모두 성인이었으며, 기존 지도 관계가 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연구 참여 중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하였다. 참여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실명 대신 A~E의 식별기호를 사용하였다. 학교·대학·전공 및 특정 공연·수상 이력의 결합에 따른 재식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대학명과 학년은 제외하고, 분석에 필요한 활동기간, 지원·진학 국가, 지원 전공 분야 및 활동 내용을 제시하였다. 인용문에 포함된 식별정보는 진술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화하거나 생략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논의

해외대학 지원에서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 경험의 활용과 의미를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상위범주와 여섯 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첫째, '한국무용 경험을 선택하고 지원 형식에 맞게 제시하다'에서는 경험의 선택 이유와 지원 형식에 따른 제시 방식이 나타났다. 둘째, '한국무용 경험으로 자신의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다'에서는 활동 과정과 역할, 문화적 경험을 자기표현의 근거로 해석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셋째, '입시 활용과 개인적·문화적 의미를 함께 해석하다'에서는 입시에서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과 즐거움·애착·문화적 자긍심 및 부담이 함께 드러났으며, 지원 이후의 참여 의향과 준비, 실행 경험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범주별 주요 분석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 경험의 활용과 의미에 관한 분석 범주

| 상위범주 | 하위범주 | 주요 분석 내용 |
|---|---|---|
| 한국무용 경험을 선택하고 지원 형식에 맞게 제시하다 | 관심과 연결되는 경험을 선택하다 | 사회적 기여에 대한 관심과 연결하여 활동 경험을 설명함. 난청 관련 포럼과 협업공연 등 복합적인 경험을 희망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연결함. |
| | 지원 형식에 따라 경험을 제시하다 | 대회 당일의 사건을 중심으로 에세이를 구성함. 활동기록에 한국무용 참여 이력을 기재하거나 포트폴리오에 공연·봉사활동 경험을 제시함. |
| 한국무용 경험으로 자신의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다 | 활동 과정과 역할을 자신의 특성으로 설명하다 | 지속적인 참여를 꾸준함으로, 학업과 연습의 병행을 노력으로 설명함. 군무에서 구성원으로 수행한 역할을 팔로어십과 연결하고, 학업·전공 관심과 함께 예술적 관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경험으로 해석함. |
| | 문화적 경험을 자기표현과 차별성에 연결하다 | 전통적 움직임과 공연 경험을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연결함. 대학 공동체에서 한국무용을 공유할 가능성을 설명하고, 다른 지원자와 구별될 수 있는 경험으로 인식함. |
| 입시 활용과 개인적·문화적 의미를 함께 해석하다 | 입시 활용을 즐거움·애착·부담과 함께 해석하다 | 입시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활동 자체의 즐거움·애착을 함께 설명함. 한국문화를 공연으로 표현한 경험에 자긍심을 부여하며, 시간·비용의 부담과 개인별 적합성의 차이도 언급함. |
| | 경험을 기억하고 여건에 따른 참여 양상을 설명하다 | 연습·공연 준비와 또래와 함께한 시간을 의미 있게 기억함. 조건부 재참여 의향, 학원 탐색 후 참여하지 못한 경험, 관련 동아리 입단 및 다른 무용 장르의 참여를 각각 보고함. |

### 1. 한국무용 경험을 선택하고 지원 형식에 맞게 제시하다

참여자들은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 경험을 자신의 관심과 연결하여 선택하고, 지원 형식에 따라 다르게 제시하

였다고 회고하였다. B와 D의 진술에서는 사회적 기여와 전공 관심을 중심으로 경험을 선택하고 연결한 이유가 나타났으며, D·C·E의 진술에서는 에세이·포트폴리오·활동목록을 통한 제시 방식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에 첫 번째 범주를 '관심과 연결되는 경험을 선택하다'와 '지원 형식에 따라 경험을 제시하다'로 구분하였다.

#### 1) 관심과 연결되는 경험을 선택하다

참여자 B는 지원자료를 구성할 때 '사회 환원'을 중요한 주제로 삼았다고 설명하였다. 한국무용 활동 역시 공연이 이루어진 맥락과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악기 연주를 통한 봉사활동과 연결하였다.

> "근데 저는 약간 그 사회 환원이 되게 컸거든요. […] 근데 그런 공연을 함으로써 좀 더 의미가 부여됐고 저는 사실 플룻도 했거든요. 플룻을 했는데 그냥 플룻을 한 게 아니라 그 적십자 오케스트라에서 요양원에서 봉사하는 플룻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의미 있는 공간에서 해 가지고 좀 의미 부여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 테마에 맞게." (연구참여자 B)

B의 설명에서 경험을 선택하고 연결하는 기준은 자신이 지원자료에서 강조하려는 주제와의 관련성이었다. 한국무용과 플루트 연주는 서로 다른 활동이었지만, 타인을 위한 공연이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함께 설명되었다. 이는 활동의 종류나 참여 실적뿐 아니라 공연의 대상과 맥락을 자신이 드러내고자 한 관심에 연결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참여자 D는 일부 미국 대학의 대학별 에세이에 한국무용 경험을 활용하였다고 회고하였다. 이때 한국무용 활동과 함께 경험한 난청 관련 포럼 및 청각장애인과의 공연을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결하였다.

> "저는 이제 난청 포럼 같은 거 하면은 바이오랑도 엮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진짜 3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공도 살릴 수 있고 일단 운동도 되고 그리고 어쨌든 작품을 하는 거니까 예술성도 있고 […]" (연구참여자 D)

D는 난청 관련 포럼을 전공 관심과 연결하고, 한국무용 활동을 신체활동과 예술적 수행의 측면에서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경험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연결은 한국무용 동작 자체보다 포럼과 공연을 포함한 복합적인 활동 경험에 근거하였다. 이 진술은 D가 해당 경험을 전공 관심과 관련된 소재로 받아들인 이유를 보여주지만, 실제 지원자료의 구체적인 서술 내용까지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B는 사회적 기여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예술활동을 연결하였고, D는 전공 관심과 연결할 수 있는 포럼 및 협업공연의 내용을 강조하였다. 다만 이러한 설명은 면담 시점에서 회고한 선택 이유이며, 후보 경험을 비교하거나 최종 소재를 결정한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니다.

#### 2) 지원 형식에 따라 경험을 제시하다

참여자 D는 한국무용 경험을 공통 에세이가 아닌 대학별 에세이에 제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회 당일 새벽에 함께 준비한 장면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이어서 서술하였다고 회고하였다.

> "[…] 대회 날에 새벽에 다 같이 4시에 모여서 준비하고 이거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써 […]" (연구참여자 D)

D의 설명에서는 장기간의 활동을 모두 나열하기보다 구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경험을 배열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대회 준비 장면은 활동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을 설명하는 소재이자 관련 활동을 연결하는 이야기의 출발점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이었다. 한편 D는 자신이 작성한 지원자료에 따라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달랐다고 회고하였다.

> "[…] 최대한 짧게라도 넣으려고 해봤는데 캐나다 입시에는 장르까지 다 못 썼어요. 제목밖에 못 써서 근데 미국 입시에는 최대한 쓴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D)

이는 D가 경험한 지원서 양식에 관한 진술로, 국가별 입학전형 전체의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활동도 제출 형식과 서술 공간에 따라 상세한 경험 설명이나 간략한 활동 이력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자 C는 개인 활동과 단체 활동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수행한 활동과 공연 맥락을 관련 설명에 제시하였다고 회고하였다.

> "[…] 포트폴리오 보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작성한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떤 거 했는지 이렇게 다 적혀 있기도 하고 또 그런 봉사활동한 것도 되게 특이한 이력이긴 하니까 […]" (연구참여자 C)

C의 사례에서는 활동 내용과 이력을 포트폴리오와 관련 설명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여기에는 수행한 활동에 관한 보고와 봉사활동을 특색 있는 이력으로 받아들인 참여자의 해석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참여자 E는 한국무용 경험을 에세이에 포함했는지 묻는 질문에, 에세이 대신 활동목록의 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 "[에세이]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제 활동 10개 중에 하나로서는 […]" (연구참여자 E)

E의 진술은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의 활용이 반드시 에세이의 중심 소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활동목록에 포함하는 것도 경험을 제시한 방식이지만, 이를 상세한 이야기 구성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참여자들의 활용 방식은 사건 중심의 에세이 서술, 포트폴리오를 통한 활동 내용의 제시, 활동목록 기재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D의 구체적인 이야기 구성 사례를 전체 참여자의 공통 경험으로 확대하기보다 제시 형식과 서술 수준의 차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 경험의 활용이 개인의 관심에 따른 선택과 지원 형식에 따른 제시라는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B는 사회적 기여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과 다른 예술활동을 연결하였고, D는 포럼과 공연을 포함한 경험을 전공 관심과 관련지어 해석하였다. McAdams와 McLean(2013, p. 233)의 서사적 정체성 논의는 과거 경험을 현재의 관심 및 미래의 방향과 연결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다만 본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지원 상황에서 경험을 선택하고 연결한 방식이며, 정체성의 형성이나 변화 자체는 아니다.

경험의 제시 방식은 지원 형식에 따라서도 달랐다. D의 진술에서는 사건을 중심으로 에세이를 구성하거나 서술 공간에 따라 활동 설명을 줄인 경험이 나타났으며, C와 E는 각각 포트폴리오와 활동목록을 통한 활용을 보고하였다. Kirkland와 Hansen(2011, p. 104)이 대학의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기표현에 주목한 것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경험의 제시를 이해할 때 개인의 관심뿐 아니라 작성 형식과 서술 조건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에세이·포트폴리오·활동목록의 차이는 비교과 활동의 활용이 이야기 구성뿐 아니라 활동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력을 기재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졌음을 드러낸다. 다만 실제 에세이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결과는 참여자가 회고한 활용 방식에 근거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무용 경험이 다른 예술활동이나 포럼·협업공연과 연결되어 자기표현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 의미를 한국무용만의 효과로 설명하기보다, 참여자가 복합적인 경험 가운데 어떤 측면

을 선택하고 연결하였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적으로는 학생이 활동명과 성취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험한 사건과 역할, 이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 및 다른 활동과의 관계를 돌아볼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입시에서 유리한 표현을 정형화하기보다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돕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2. 한국무용 경험으로 자신의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다

참여자들은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의 이력과 수행 과정, 문화적 의미를 자신을 설명하는 근거로 해석하였다. 지속적인 참여는 꾸준함으로, 학업과 연습의 병행은 노력으로, 군무에서 구성원과 함께 수행한 역할은 팀워크와 팔로어십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한국무용을 전공 관심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예술적 면모와 문화적 배경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으로 받아들였다. 첫 번째 범주가 경험의 선택 이유와 제시 방식에 주목하였다면, 이 범주는 한국무용 경험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자기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다룬다. 이때 지원 당시의 자기표현에 관한 회고와 면담 시점에서 해석한 자기표현의 가능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활동 과정과 역할을 자신의 특성으로 설명하다'와 '문화적 경험을 자기표현과 차별성에 연결하다'의 두 하위범주로 정리하였다.

### 1) 활동 과정과 역할을 자신의 특성으로 설명하다

참여자 C는 한국무용 활동과 관련 공연·봉사 경험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기록을 꾸준히 활동한 자신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하였다. 이 진술은 면담자가 봉사활동과 지속적인 한국무용 활동 가운데 무엇이 입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맥락에서 나왔다.

> "한국무용을 꾸준히 하는 게 이제 제 입시에는 제일 크게 작용한 것 같기는 해요. 꾸준히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 이제 포트폴리오 보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작성한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떤 거 했는지 이렇게 다 적혀 있기도 하고 또 그런 봉사활동한 것도 되게 특이한 이력이긴 하니까 그것도 되게 특이했을 것 같고 […]" (연구참여자 C)

C는 포트폴리오와 관련 기록을 통해 한국무용 활동을 지속해 온 과정이 드러난다고 해석하였으며, 봉사활동은 특색 있는 이력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지속적인 참여와 활동 이력의 특이성에 각각 의미를 부여한 설명이다. 다만 "제일 크게 작용한 것 같기는 해요"라는 표현은 참여자가 회고하면서 부여한 중요도이다. 따라서 이 사례는 지속적인 참여를 자신의 특성으로 해석한 자료이며, 입학사정에서 해당 요소가 실제로 높게 평가되었다는 근거와는 구분된다. 참여자 D는 학업과 학생회 활동으로 바쁜 상황에서 외부 연습을 병행했던 경험을 설명하였다. 대학별 에세이에 대회 당일의 준비 과정을 담았다는 회고에서, 이러한 경험은 자신이 활동에 기울인 시간과 노력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연결되었다.

> "일단 몸 쓰는 것 자체가 익숙하진 않으니까. 근데 일단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제가 그때 그 학생회 부장을 또 했었어서 뭔가 일이 되게 많았거든. […] 뭔가 학교에만 있어도 내가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외부 연습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 (연구참여자 D)

D의 진술은 학업과 학생회 활동으로 바쁜 상황에서 외부 연습을 병행한 경험을 보여준다. 대회 준비과정을 에세이에 담았다는 앞선 회고와 함께 보면, 이러한 경험은 활동에 들인 시간과 노력을 설명하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있다. 첫 번째 범주에서는 구체적인 장면을 에세이의 소재로 선택한 방식에 주목하였다면, 여기서는 그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노력의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 군무에서의 역할도 자신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다. 참여자 B는 여러 비교과 활동에서 리더 역할을 맡았으나, 한국무용에서는 구성원들과 함께 수행한 경험을 팀워크와 연결하였다.

>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리더형 포지션의 이슈들이 되게 많았는데 팀워크나 이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괜찮은 활동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진짜 군무는 한 명이 잘못하면은 다 다 망가지고 되게 팀워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활동이잖아요." (연구참여자 B)

B가 강조한 것은 개인의 수행이 다른 구성원과 공동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군무의 특성이었다. 이는 협력을 추상적인 장점으로 제시하기보다 서로의 움직임을 맞추어야 하는 수행 조건에 근거한 설명이었다. 이어 B는 이러한 경험을 대학별 에세이에서 팔로어십으로 다루었던 것으로 기억하였다.

> "제가 한국무용에 관해 작성했던 것은 공통 원서가 아니라 대학별로 제출하는 추가 에세이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주로 단체를 설립하거나 리더 역할을 맡아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경험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무용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내용을 작성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런 취지로 다룬 적이 있어요. 기존 에세이들이 대부분 설립자나 리더로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한국무용 경험을 통해 제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

B는 자신이 주도했던 활동과 군무에서 함께 수행한 역할을 비교하면서, 기존 활동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제시하려 했던 것으로 회고하였다. 팔로어십이라는 해석은 공동 수행의 특성과 다른 활동 이력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다만 기억의 불확실성을 직접 언급하였으므로, 당시 에세이의 정확한 문장이나 강조 정도까지 확인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참여자 E는 공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한국무용 경험을 연결하여 자신의 예술적 면모를 설명하였다. 특히 평소 시를 좋아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한국무용을 표현적 관심과 연결하였다.

> "그래서 사실 이 씨가 입시에서 입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씨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더 중요한데 저한테는 제가 옛날에 시를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제 살짝 한국무용이 어떻게 보자면 살짝 그런 예체능적인 시적인 모습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짜 그 면을 한국무용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구참여자 E)

E는 한국무용을 에세이의 소재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활동목록에 포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위 발언은 해당 해석을 에세이에 그대로 서술했다는 보고가 아니라, 한국무용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관심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의미 부여에 해당한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에서 동일한 특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C는 지속적인 참여를, D는 학업과 연습을 병행한 노력을, B는 공동 수행에서의 역할을, E는 전공 외의 예술적 관심을 중심으로 자신을 설명하였다. 자기표현의 내용은 활동명 자체보다 참여자가 수행한 역할과 그 경험을 다른 활동 및 관심에 연결한 방식에 따라 달라졌다.

### 2) 문화적 경험을 자기표현과 차별성에 연결하다

참여자들은 한국무용을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활동으로 받아들였다. 문화적 의미는 한국의 춤이라는 명칭뿐 아니라 움직임과 전통을 배우고 작품을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준 경험과 연결되었다. 참여자 A는 동작에 담긴 의미와 문화적 배경을 배운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한국무용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그거를 넘어서 그 이면에 어떠한 의의까지 깨닫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이런 동작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뿌리를 가지고 어떤 문화적인 의미가 있고 근데 저는 또 한국인이니까 그런 한국의 전통을 배우면서도 […] 깨달은 부분도 있고 […]” (연구참여자 A)

A에게 문화적 배경은 출신 국가에 관한 정보와 함께 직접 배우고 수행한 경험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 발언은 면담 시점의 해석으로, A가 한국무용을 문화적 자기표현의 자원으로 이해한 배경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대학 지원에서 자신이 어떤 문화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문제와 연결되었다.

> “그 다양성이라 함은 다시 말하자면 이제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너가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널 뽑았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뭔데 이거 너가 너의 문화와 다양성을 어떻게 보여줄 건데라는 거기서 이제 물음이 갈리는 건데 한국무용 하면 딱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연구참여자 A)

이 진술에서 A는 한국인이라는 사실과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표현한 경험을 연결하였다. 다만 실제 평가자의 질문을 그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상한 평가자의 관심을 가상의 질문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실제 평가기준보다 참여자가 이해한 지원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하였다. 참여자 C도 한국무용을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실천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경험으로 이해하였다.

> “그래서 뭔가 한국적인 걸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내가 나의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공부하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에 정말 열정 있게 이렇게 꾸준히 해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 (연구참여자 C)

C는 문화적 배경을 자신의 문화를 배우고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특성과 연결하였다. 이는 앞서 포트폴리오를 통해 꾸준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석한 내용과 이어진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라는 표현은 자기표현의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며, 실제 제출 문구를 재현한 것은 아니다. 참여자 B는 다른 지원자의 활동기록과 비교하면서 한국무용 경험이 눈에 띌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러한 차별성에 대한 이해가 지원 당시와 이후에 동일하지 않았음을 설명하였다.

> “제가 이걸 근데 고3 때는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는 막 그렇게 자각을 안 해 자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선배들 것도 보고 기회가 있을 있으면 다른 사람 원서도 보고 하면 진짜 얘도 여기서 이거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 특이한 게 저는 은근히 크다고 눈길이 한 번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국무용은 잡을 수 있는 분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

B의 차별성 인식은 자신이 접한 다른 활동기록과의 비교 속에서 구체화되었다. 지원 이후의 경험도 면담 당시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의 해석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지원 당시부터 명확하게 설정한 전략으로 소급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A와 C가 문화를 배우고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면, B는 다른 지원자의 활동과 비교했을 때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여자 E는 지원 면접에서 한국무용 경험을 설명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대학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묻는 질문에 고등학교에서의 한국무용 활동을 언급하고, 이를 대학 공동체에서 공유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회고하였다.

> "면접을 한 5개 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다 공대로 썼기 때문에 면접 비중이 좀 그쪽에 많이 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면접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학교에서 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 이제 한 번 한국무용을 제가 고등학교 때 했었는데 대학교 가서도 한번 이런 동아리를 시작하거나 공연을 한번 펼쳐보고 싶다 이걸 한번 공유하고 싶다 […]" (연구참여자 E)

E에게 한국무용은 과거의 활동 이력이면서 대학에서 자신이 무엇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설명하는 근거였다. 이는 면접에서의 활용에 관한 회고이지만, 이후 동아리를 만들거나 공연을 실행했다는 보고와는 구분된다. 이상의 진술에서 문화적 자기표현은 전통과 움직임의 의미를 배운 경험,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태도, 대학 공동체에서 공유할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별성은 다른 지원자의 활동과 구별되거나 평가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기대와 관련되었다. 두 의미는 연결될 수 있지만, 문화적 경험이 곧바로 입시상의 이점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무용 경험을 통한 자기표현이 활동에서 수행한 역할과 기존 활동 이력의 관계 속에서 구성됨을 보여준다. Leary와 Kowalski(1990, p. 34)는 인상 구성에 자기개념, 바람직하거나 피하고 싶은 이미지, 역할의 제약, 상대방의 가치 및 현재의 사회적 이미지가 관련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관점은 B가 리더 중심의 활동 이력과 대비하여 군무 경험을 팔로어십으로 설명한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무용 경험의 자기표현적 의미는 활동 자체뿐 아니라, 다른 활동에서 이미 드러낸 모습과 추가로 보여주고자 한 특성의 관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

문화적 자기표현 역시 참여자가 이해한 지원 상황과 관련되어 있었다. Kirkland와 Hansen(2011, p. 104)이 대학의 다양성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위치 설정에 주목한 것과 관련하여, A의 가상 질문과 E의 면접 경험은 한국무용을 대학 공동체에서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경험으로 설명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다만 A의 진술은 예상한 평가자의 관심에 관한 해석이고, E의 진술은 실제 면접 답변에 관한 회고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B의 차별성 인식에는 지원 이후 다른 활동기록을 접한 경험이 반영되어 있었다. 따라서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는 의미와 다른 지원자와 구별될 수 있다는 기대를 구분하고, 현재의 해석을 지원 당시의 전략으로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

본 범주는 꾸준함이나 협력을 한국무용만의 효과로 제시하기보다, 지속적인 참여와 공동 수행, 전통과 움직임의 의미를 배운 경험이 자기표현의 내용으로 해석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서로 다른 특성을 강조하였으며, 실제 활용에 관한 회고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해석도 함께 나타났다. 교육적으로는 학습자가 활동에서 수행한 역할과 문화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이를 다른 관심 및 경험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3. 입시 활용과 개인적·문화적 의미를 함께 해석하다

참여자들은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을 대학 지원에 활용한 경험이면서 즐거움과 애착, 또래와의 관계 및 문화적

자긍심이 남아 있는 경험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학업과 연습의 병행, 시간과 비용에 따른 부담도 회고하였다. 앞선 두 범주가 지원 과정에서 경험을 제시하고 자신을 설명한 방식에 주목하였다면, 이 범주는 면담 시점에서 활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입시 활용과 개인적·문화적 의미의 관계를 이해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이에 따라 '입시 활용을 즐거움·애착 및 부담과 함께 해석하다'와 '경험을 기억하고 여건에 따른 참여 양상을 설명하다'의 두 하위범주로 정리하였다.

### 1) 입시 활용을 즐거움·애착 및 부담과 함께 해석하다

참여자 B는 한국무용을 입시에 활용한 활동 가운데 하나로 설명하면서도, 참여 이유를 입시만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관심 있는 활동을 배울 기회를 활용하고 싶었다는 설명과 함께, 한국무용에 대한 애착과 다른 활동과 구별되는 특성을 언급하였다.

> "저는 솔직히 제 입시 활동들이 모두 입시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진심을 다해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무용도 그중 하나였고요. 농구도 했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한국무용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무용이 좀 더 특별하고 차별화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연구참여자 B)

B에게 한국무용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활동이면서 다른 활동과 구별될 수 있는 경험이었다. 앞선 범주에서 활동기록의 차별성을 강조했던 진술과 함께 보면, 활동에 대한 애착과 지원 과정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함께 설명되었다. 다만 이 회고만으로 어느 의미가 참여를 결정한 주된 동기였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참여자 A는 연습과 공연을 준비한 경험을 학업 사이에서 몸을 움직이며 즐거움을 느낀 시간으로 기억하였다. 면담자가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질문하였을 때에도 춤추는 것을 좋아했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였다.

> "저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무용을 하는 거 일찍 일어나는 거 이렇게 개인 수업하고 단체 수업하는 것들은 그냥 돌아보면 항상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냥 춤추는 게 좋았고 그게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무용 작품을 하든 연습을 몇 시간씩 하든 그게 다 오히려 공부만 하면 힘든데 공부하다가 리플레시도 되니까 […]" (연구참여자 A)

A는 시험과 대회 일정이 겹칠 때 시간을 분배하고 구성원들과 연습 일정을 조율해야 했다고도 설명하였다. 즐거웠다는 회고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보다, 일정 조정의 부담 속에서도 춤추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무용의 가치는 학업 중심의 일상에서 몸을 움직이고 다른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경험과 관련되었다. 참여자 E는 입시에서의 도움과 자신의 삶에서 얻은 의미를 함께 언급하면서, 활동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그건 진짜 학생마다 케바케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학생이랑 시너지가 얼마큼 맞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저랑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저도 그 면에서 진짜 무용을 함으로써 이제 살짝 입시에 도움이 되는 거 외에도 이제 제 인생에서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운동도 되고 막 여러모로 이제 제 표현력도 늘릴 수 있고 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 (연구참여자 E)

E는 한국무용의 의미를 개인의 관심과 활동의 적합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표현력과 자기이해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에 관한 발언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변화보다, 면담 당시 E가 활동에 부여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E의 회고에는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부담도 함께 나타났다. 해외공연을 준비하며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지만, 공연에 참여한 일은 뿌듯한 기억으로 남았다고 설명하였다.

> "네 그래서 진짜 뭐 이제 시간이라든지 진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게 정말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 해외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펼치기 위해서 공연을 할 기회가 인생에서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네 그 생각이 지금도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뿌듯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또 더 뿌듯해지기 때문에 […]" (연구참여자 E)

이 진술에서 문화적 자긍심은 평가자의 관심에 대한 기대보다, 직접 공연에 참여하여 한국문화를 표현했다는 기억과 관련되었다. E는 공연 참여를 뿌듯하게 기억하면서도 당시의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회고하였다. 따라서 이 경험은 긍정적인 의미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참여 과정의 부담과 이후 부여한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을 지원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인 동시에 즐거움과 배움, 관계 및 문화적 의미를 지닌 활동으로 설명하였다. 활동에 대한 애착과 입시 활용에 대한 인식은 함께 나타났으며, 참여에 필요한 부담도 이러한 의미와 함께 검토되어야 했다.

### 2) 경험을 기억하고 여건에 따른 참여 양상을 설명하다

지원 이후의 참여 양상은 활동의 종류와 실행 여부에 따라 달랐다. B는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고, C는 한국무용 재참여 의향과 함께 대학에서의 힙합 참여를 보고하였다. D는 한국무용 학원을 알아보았으나 시간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A는 관련 동아리에 입단한 뒤 한국무용을 공유할 구상을 설명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을 의향·준비·실행의 단계로 나눈 결과가 아니라, 면담에서 보고된 서로 다른 활동과 참여 상태를 구분한 것이다.

> "저도 정확히는 그러니까 왠지 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한 [한국무용]에 뭔가 되게 뭔가 흥미를 가지고 정말 정말 뭔가 진심으로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경험 근데 그거를 진짜 해본 경험이 진짜 오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C는 흥미를 느꼈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직접 참여했던 경험이 오래 남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특정한 역량이나 성취를 제시하기보다, 활동에 몰입했던 시간이 면담 시점에도 의미 있게 기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자 B는 공연의 결과뿐 아니라 친구들과 식사하고 이동하며 준비했던 장면을 기억하였다. 다시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회가 주어지면 하고 싶다고 답한 뒤, 당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다 제가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제 이름 썼으니까 해야지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 그리고 그때 약간 애들이랑 따로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이동하고 뭐 메이크업 받고 그런 것도 다 추억이었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B)

B의 기억은 무대 위의 수행뿐 아니라 공연 준비 과정에서 함께한 관계적 경험을 포함하였다. 이는 지원자료에서 강조했던 팀워크나 차별성과 연결될 수 있지만, 친구들과 보낸 시간을 개인적인 추억으로 받아들이는 설명이기

도 하다. 따라서 대학 지원에 제시한 특성만으로는 참여자에게 남은 활동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억과 이후의 참여가 연결되는 방식은 참여자마다 달랐다. C는 한국무용을 다시 배울 의향을 밝혔지만, 기회와 시간이 마련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 "저는 한국에 들어가서도 또 이제 한국무용 기회가 있으면 또 한국무용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나 아니면 아니면 이제 시간이 있을 때 [한국무용]을 놓지 않고 계속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연구참여자 C)

한편 C는 면담 당시 대학에서 힙합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도 설명하였다.

> "제가 여기서 약간 힙합 댄스 이런 거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도 힙합 댄스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 또 새로운 근데 재밌게 하고 있어요. 여기 막 그런 클럽 같은 거가 있어서." (연구참여자 C)

C의 사례에서는 한국무용 재참여 의향과 다른 장르의 무용 참여가 함께 나타났다. 이는 한국무용에 대한 관심이 남아 있으면서 대학에서 선택한 활동의 형태는 달랐음을 보여준다. 힙합 참여는 한국무용의 지속과 구분하였으며, 두 활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하지 않았다. 참여자 D는 한국무용 학원을 알아보았지만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참여하지 못했다고 회고하였다. 졸업 이후에는 취미로 한국무용에 집중해 보고 싶었다는 생각도 설명하였다.

>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 진짜 학원까지 알아봤거든요. 근데 못 했어요. […] 뭔가 한국무용에 제일 온전한 신경을 쓰지는 못했는데 취미로서 뭔가 졸업하고 나서 해보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 가지고 그게 진짜 아쉬워요." (연구참여자 D)

학원을 알아본 것은 참여를 위한 준비 행동이지만 실제 수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D의 설명에는 고등학교 때와 다른 조건에서 활동해 보고 싶은 바람과 이를 실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재참여에 대한 관심이 실제 활동으로 연결되는 데 시간 확보가 중요한 조건이었음을 보여준다. 참여자 A는 대학의 관련 무용동아리에 오디션을 거쳐 입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무용을 다른 춤과 결합하거나 가르쳐 보고 싶다는 구상을 설명하였다.

> "그 멤버들이 보통 중국인이나 일본인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또 이제 거기 이번에 오디션 봐가지고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한국무용도 같이 중국무용을 살짝 퓨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무용도 가르쳐 준다든지 하면서 저희 문화를 정말 알리고 그렇게 소통도 하고 문화 간에 하는 게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서 […]" (연구참여자 A)

A가 보고한 실행 경험은 관련 동아리 입단이며, 한국무용을 가르치거나 다른 춤과 결합하는 것은 향후 구상이다.

이상의 결과는 참여자들이 한국무용 경험의 가치를 입시에서의 활용만으로 설명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B는 입시 활용과 자발적인 관심을 함께 언급하였고, E는 입시에서의 도움과 별개로 활동에 개인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Ryan과 Deci(2000, p. 55)가 외적 결과를 지향하는 행동에서도 자율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 점은 이러한 경험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다만 본 연구가 확인한 것은 면담 시점에서 설명된 활용과 의미의 관계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이며, 참여 당시의 동기 유형이나 내면화 수준은 아니다.

활동에 부여한 의미에는 춤추는 즐거움뿐 아니라 또래 관계와 문화적 자긍심도 포함되었다. Maraz, Király, Urbán, Griffiths와 Demetrovics(2015, p. 1)는 여가 목적의 살사·볼룸댄스 참여에서 체력 관리, 기분 향상, 사회적 교류 등 다양한 동기를 확인하였다. 참여 동기를 조사한 이 연구와 회고적 의미를 탐색한 본 연구는 구분되지만, 무용 참여를 이해할 때 신체적·정서적·관계적 측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 준비 과정의 식사와 이동도 의미 있는 추억으로 기억되었으며, E는 한국문화를 공연으로 표현한 일을 뿌듯하게 받아들였다. 동시에 당시의 시간·비용 부담도 회고되어, 활동에 부여한 가치와 참여에 필요한 자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드러났다.

긍정적인 기억과 재참여 의향이 한국무용의 실제 참여로 곧바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Rhodes와 de Bruijn(2013, pp. 296-297)이 신체활동 의향과 행동의 불일치를 확인한 연구는 의향과 실행을 구분하는 데 참고가 된다. 본 연구에서 D는 학원을 알아보았으나 시간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였고, C는 한국무용 재참여를 희망하면서 다른 장르의 무용에 참여하였다. A의 관련 동아리 입단 역시 향후 한국무용 공유 계획의 실행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사례는 활동에 부여한 의미만으로 이후의 참여를 판단하기보다, 참여하려는 활동의 종류와 시간·기회 및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야 함을 보여준다.

본 범주의 의의는 입시에서의 유용성, 개인적·문화적 가치, 이후의 참여 여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데 있다. 이에 교육 이후의 참여를 지원할 때에는 학습자가 경험에 부여한 의미와 참여하고 싶은 활동을 존중하면서, 학업·일상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과 접근 가능한 활동 기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제고등학교 졸업생의 해외대학 지원에서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 경험의 활용과 개인적·문화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C국제고등학교 재학 중 해당 활동에 참여하고 해외대학 지원을 경험한 졸업생 5명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는 대학 지원 이후 Zoom을 활용한 반구조화 심층면담으로 수집하였으며, 전사자료를 질적 내용분석의 준거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참여자들은 자신의 관심과 연결되는 경험을 선택하고, 에세이·활동기록·포트폴리오 등 지원 형식에 따라 제시하였다고 회고하였다. 둘째, 지속적인 참여, 학업과 연습의 병행, 군무에서의 역할 및 예술적 관심을 자신의 특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해석하였다. 문화적 경험은 자신의 배경과 대학 공동체에서의 기여 가능성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으며, 면접에서의 활용도 보고되었다. 다른 지원자와 구별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타났으나, 이러한 기대와 실제 활용에 관한 회고는 구분하였다. 셋째, 입시 활용에 대한 인식과 즐거움·애착·또래 관계·문화적 자긍심이 함께 나타났으며, 참여 당시의 시간·비용 부담도 회고되었다. 지원 이후의 경험에서는 한국무용 재참여 의향, 준비 후 미실행, 관련 동아리 입단 및 다른 장르의 무용 참여를 구분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무용 비교과 활동 경험의 활용과 의미를 참여자의 관심과 다른 활동 이력, 지원 형식 및 이후의 생활 여건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군무에서 구성원으로 수행한 역할은 기존의 리더 활동과 다른 모습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문화적 경험은 지원 상황의 자기표현과 공연에 대한 자긍심 등 서로 다른 맥락에서 해석되었다. 또한 경험의 제시는 사건 중심의 이야기 구성부터 활동 이력의 기재까지 다양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한국무용 경험을 지원에 제시한 방식에 관한 회고와 면담 시점의 의미 해석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입시에서의 유용성, 개인적·문화적 가치 및 이후의 참여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양상을 구체화한 데 있다.

교육적으로는 학생이 활동의 성취뿐 아니라 수행한 역할과 문화적 경험, 즐거움과 관계 및 어려움을 돌아보고, 이를 자신의 관심과 연결하여 설명할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후의 참여를 지원할 때에도 개인의 의향과 함께 학업·일상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과 접근 가능한 활동 기회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동일 학교 출신의 자발적 참여자 5명의 회고적 면담에 근거하므로, 결과를 이해하고 적용할 때 해당 교육·지원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지원 당시의 경험은 기억의 불확실성과 면담 시점의 재해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도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기존 관계가 응답과 해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원자료의 원문과 입학사정 과정의 평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한국무용과 연계된 협업·봉사 등 복합적인 경험에서 각 활동의 기여를 분리하여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결과는 참여자가 보고한 활용 경험과 의미 해석의 범위에서 이해해야 하며, 실제 입학사정의 평가나 합격에 대한 인과적 영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첫째, 한국무용 경험을 지원자료에 활용하지 않은 학생과 활동을 중단한 학생 등을 포함하여 활용 여부와 참여 경로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지원 국가·전공·전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경우에는 각각의 지원 요건과 활동 맥락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둘째, 참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원자료의 초안과 수정본을 면담자료와 대조하고, 작성 과정에서 교사나 상담자가 관여한 방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 지원 이전부터 진학 이후까지 추적하여 활동에 부여하는 의미의 변화와 재참여 의향이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거나 이어지지 않는 조건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김설리, 조남규(2019).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과 에릭슨의 자아정체성 발달이론을 중심으로 한 초등학교 무용교육의 의미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55**, 57-73.

김주아, 전경희, 김지은, 강충서(2024). 미국의 대입제도 동향 분석: 홀리스틱 입학사정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34**(6), 1-29.

김형숙(2012).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미술교육연구논총, 32**, 1-29.

박수련, 윤주석(2022). 한국무용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례연구: 'S 국제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3**(2), 55-77.

박태연(2019). 초등 한국무용 교육의 현황과 실태-청주지역 초등학교 한국무용 학습자들의 인식분석. **영남춤학회誌, 7**(1), 85-110.

Baxter, P., & Jack, S. (2008).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ology: Study design and implementation for novice researchers. *The Qualitative Report, 13*(4), 544-559.

Harvard College. (n.d.). *"What admissions criteria do you use?".* Retrieved August 2, 2026, from https://college.harvard.edu/resources/faq/what-admissions-criteria-do-you-use

Kirkland, A., & Hansen, B. B. (2011). "How do I bring diversity?" Race and class in the college admissions essay. *Law & Society Review, 45*(1), 103-138.

Leary, M. R., & Kowalski, R. M. (1990). Impression management: A literature review and two-compon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1), 34-47.

Maraz, A., Király, O., Urbán, R., Griffiths, M. D., & Demetrovics, Z. (2015). Why do you dance? Development of the Dance Motivation Inventory (DMI). *PLOS ONE, 10*(3), e0122866.

McAdams, D. P., & McLean, K. C. (2013). Narrative ident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2*(3), 233-238.

National Association for College Admission Counseling. (2023). *"Factors in the admission decision".* Retrieved from https://www.nacacnet.org/factors-in-the-admission-decision/

Nowell, L. S., Norris, J. M., White, D. E., & Moules, N. J. (2017). Thematic analysis: Striving to meet the trustworthiness criteria.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16,* 1-13.

Palinkas, L. A., Horwitz, S. M., Green, C. A., Wisdom, J. P., Duan, N., & Hoagwood, K. (2015). Purposeful sampling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for qualitativ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in mixed method implementation research.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Mental Health and Mental Health Services Research, 42*(5), 533-544.

Rhodes, R. E., & de Bruijn, G.-J. (2013). How big is the physical activity intention-behaviour gap? A meta-analysis using the action control framework.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8*(2), 296-309.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Schreier, M. (2014).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U. Flick (Ed.),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data analysis* (pp. 170-183). London: SAGE.

Tong, A., Sainsbury, P., & Craig, J. (2007). Consolidated criteria for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 (COREQ): A 32-item checklist for interviews and focus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 19*(6), 349-357.

Yale University. (n.d.). *"What Yale looks for".* Retrieved August 2, 2026, from https://admissions.yale.edu/what-yale-looks-for

ABSTRACT

# The Use and Meanings of Extracurricular Korean Dance Activities in Intern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Applications to Universities Abroad

**Jungyeon An*** Kimpo University · **Hyejeon Ho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is qualitative case study explored how intern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recalled using extracurricular Korean dance experiences in overseas university applications and interpreted their personal and cultural meanings at the time of the interviews. Retrospective, semi-structured Zoom interviews with five graduates of C International High School in South Korea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ree categories were identified. First, participants recalled selecting experiences relevant to their interests and adapting their presentation to application formats, including essays, activity lists, and portfolios. Second, they interpreted sustained participation, efforts to balance academic work and rehearsals, ensemble roles, and artistic interests as resources for self-presentation. They viewed cultural experiences as resources for explaining their backgrounds and potential contributions to university communities, including in admissions interviews, and distinguishing themselves from other applicants. Third, perceived application usefulness coexisted with enjoyment, attachment, peer relationships, and cultural pride, alongside time and financial burdens. Regarding subsequent engagement, some expressed conditional intentions to resume Korean dance, one described preparations that did not lead to participation, and others reported joining a related dance group or participating in another dance genre. The findings suggest understanding the uses and meanings of Korean dance experiences in relation to participants' interests,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subsequent life circumstances. The study illuminates how embodied and cultural experiences are selectively presented for self-expression while retaining personal meanings, without establishing their effects on admissions outcomes.

**Key words :** intern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applications to universities abroad, Korean dance, extracurricular activities, self-presentation

논문투고일: 2026.09.10
논문심사일: 2026.10.08
심사완료일: 2026.10.19

* Professor, Division of Liberal Studies, Kimpo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Da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Copyright© 2026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